

## 투데이

5·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조한유씨의 생생한 일기



5월18일

## “공수부대의 무차별 폭행·위협 시민들 공포와 전율에 사색”

5월19일

## “젊은 사람들 무조건 잡아서 봉동으로 개파듯 후려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에는 군부독재의 만행과 참상을 생생하게 고발한 일기 4점이 포함돼 있다.

그 중 시민들의 황급히 거집인 금남로를 가장 가까이 지켜볼 수 있는 총장로에 있는 광주우체국의 직원 조한유(74)씨의 일기는 생생한 ‘증언록’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조씨는 80년 5월 15일부터 28일까지 광주항쟁의 진행상황과 참상을 시시각각 적었다. 비상계엄이 확대되기 전인 5월 15일과 16일의 기록 등 항쟁의 진행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5월 15일 목요일, 학생의 평화적 시위가 각방의 도로를 통해 도청 앞 광장으로 집결된다. 전남대 조선대가 주축이란다. 아주 조직적이며 질서 정연하다. 5월 16일 금요일, 서울의 학생시위가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다리며 중지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 아마 광주학생들도 오늘로 모든 시위를 끝내리라는 얘기들이 들린다.”

공수부대가 광주에 투입돼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한 18일 상황은 처참하다.

“5월 18일 일요일, 통행금지는 광주시에 한해 처음으로 20시부터 하루나 너무 빨랐던지 21시부터 4시까지로 정하고 있다. 당시 사령이어서 19시쯤 출근했던 총장로에서 공수부대의 시민 학생에 대한 무차별 폭행·위협으로 시민이 공포와 전율에 사색이 되어 있다.”라고 썼다.

5월 19일엔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학살이 국에 달한 것을 고발했다.

“큰일났습니다. 공수부대들이 젊은 사람을 무조건 잡아서 봉동으로 개파듯 후려치고 있습니다. <종락> 이제는 우체국 정문 앞에서 비명소리가 반복된다. 창틀으로 내다봤더니 젊은 시민(학생인지 신원 모름) 한 사람을 뿐이고 웃옷을 반쯤 벗겨놓은 채 방망이로 등허리를 마구 때리는 폭력이 자행된다.”

무장한 군인은 우왕좌왕하면서 마치 ‘쥐 구멍에서 기어 나오는 쥐를 잡으려는 성난 고양이처럼’ 봉동이를 쥐고 휘둘러대면서 살피고 다닌다.”

조씨는 5월 20일의 기록에서 주인 젊은 신발 등이 솔했다고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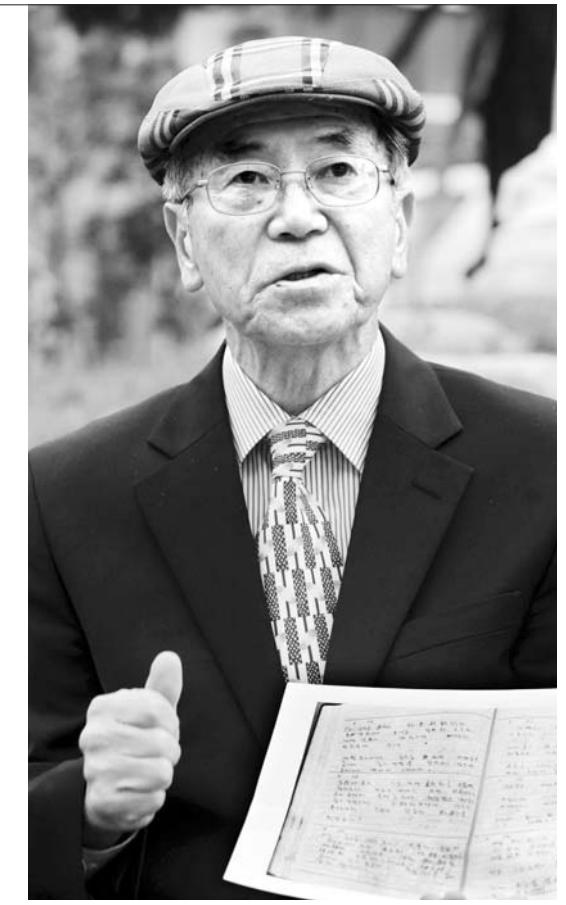
“5월 20일 화요일. 금남로를 걷는데 주인

없는 젊어버린 신발짜들이 100여 짝은 꽤 보인다. 어제인지 그제인지 하여간 오늘 하오 이전에 희생자, 시위자들의 신발임에는 틀림없지 않겠는가! 구두짝, 운동화, 고무신, 스키퍼 등이 널려있다.”

무력으로 시민들을 탄압했던 계엄군은 선무공작도 펼쳤다. “5월 21일 수요일. 계엄사에서는 계속 발표한다. 광주사태는 현지에 내려온 서울의 불순분자 현실 불만자와, 고정간첩에 의해 악성 유언비어가 나돌아 선량하고 순박한 광주시민이 분별없이 감정을 가지고 대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조씨는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펼쳐진 마지막 진압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5월 27일 화요일, 아침방송에 계엄군이 도청을 탈환하고 폭도를 진압했다고 뉴스가 터진다. (새벽) 4시 30분부터 작전해서 6시에 완전 군의 작전이 성공적으로 효과있는 진압이 됐다고 시민을 안심시켰다. 뉴스가 간헐적으로 계속된다. ‘모든 공직자는 7시 30분 까지 자기 직장에 복귀하라’, ‘복귀하지 않으면 직장 이탈로 처리될 것이다’라는 계엄사의 포고령이 방송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25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에서 만난 조한유(74)씨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월 일기’를 보여주며 80년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장애인 복지인권 광주 3위 전남 14위

光州 특수교사수·공무원 고용 비율 1위  
全南 여성장애인 도우미 지원 전국 최고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 복지 인권’ 비교 연구결과 광주시가 인권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에서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도는 2개 분야 모두에서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과정숙(민노·비례) 의원이 발표한 ‘2011년도 16개 시·도 장애인 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복지분야에서 57.58점을 얻어 대전(60.65점)과 경남(57.83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80.81점을 얻어 대전(83.05점)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2개 분야에서 모두 상위권에 랭크됐다.

각 분야의 최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50.90점, 교육 분야는 72.03점이었다.

특히 광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과 민간부문 의무

고용률이 각각 3.64%와 2.96%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보건 및 자립지원에서도 광주는 가장 높은 61.78점을 받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또한 88.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또 특수교육 대상자 대비 특수교육 교사 수가 22.2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장애아동 통합 및 전답어린이집 비율은 1.0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복지·교육 분야에서 전국 하위권을 맴돌았다. 복지 분야에서 44.08점을 얻어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권인 14위를 차지했고, 교육 분야에서는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도는 72.24점을으로, 11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여성장애인 도우미 지원비율에서 47.90%를 얻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등 5개 영역 50개 지표를 교육분야에는 13개의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애인 복지예산 비율에서도 전남은 0.93%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고,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 복지예산도 79만 2011원으로 전국 평균 금액(98만 1615원)에 훨씬 못 미쳤다.

반면 장애인 교원 고용비율은 1.23%, 울산광역시(1.30%)에 이어 2를 차지했다.

전국 16개 시·도 중 복지 분야에서

는 경북(43.00점)과 충남(42.45점)이 15위와 16위로 가장 열악했고, 교육 분야에서는 경기(68.65점)와 서울(67.86점)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과정숙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민주당 박은수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한나리당 윤석용·이정선 의원, 16개 시·도 의회 의원이 지난 2월부터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조사와 연구 대상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었다. 또한, 조사분석을 위해 복지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등 5개 영역 50개 지표를 교육분야에는 13개의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호 수위 상승 시가문화권 영향”

### 전남대 김신중 교수 주장

전남대 김신중 국문학과 교수는 25일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해 “광주호의 수위가 일정부분 높아져 주변 시가문화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광주시의회 4대 강 사업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오섭 광주시의원) 주최로 시의회에서 열린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으로 상류의 환벽당(環碧堂) 아래 충효교의 재가설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보면, 조대(鈞臺)와 응소(龍沼) 부근의 지형과 노자암 등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인공적인 구조물 등에 대한 단순한 물거리의 차원을 넘어 거기에 담긴 시대정신이나 문화적 의미까지를 포함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의 원형훼손이 없는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그는 이어 “자연 훼손은 현재뿐 아니라 후손에 대해서도 매우 무책임한 일로 한 번 훼손된 유적은 모형 제작이나 재현 등 그 어떤 방법으로도 원래로 되돌릴 수 없다”며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시의회 4대 강 사업 특별위원회 간사인 강은미 시의원, 조선대학교 이성기 교수, 경답연구소 김의주 소장, 광주환경연합 최지현 사무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회를 벌였다.

광주시의회 4대 강 특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오는 31일로 예정된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둑 높이기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놓어총공사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초청된 농어촌공사 측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오는 31일 지역 주민 공청회 때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내달 설립

광주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는 데 컨트롤티워 역할을 할 그린카부품 산업진흥재단이 내달 설립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발기인대회와 총회를 연 뒤 지식경제부 승인을 받아 오는 7월 재단을 개원할 예정이다.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은 디젤 기술전문센터와 핵심부품소재센터

를 산하에 두고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재단은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이사장으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와 산학협력단장 등 20명을 이사로 하고, 원장과, 단장, 직원 등 총 6명의 상근인력으로 출발하게 된다.

재단 운영 재원 5억원은 광주시에

서 보조한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뉴스 브리핑

#### 권익위, 부패신고자 5명에 3억8천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사가 도로공사용 토사반입비를 허위로 청구해 수십억원을 쟁취했다는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보상금 2억 9900만원을 주는 등 부부 신고자

5명에게 3억85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됐던 예산 37억7천만원이 절감됐다.

#### 권익위,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제도개선 권고

일반의약품 약국의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방안의 조속한 마련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5일 가정상비약 약국의 판매

를 위한 시민연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복지부에 취약 시장대 국민의 일반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전통 침·뜸 무료공개강좌

- \* 중국 중의대학과 학술교류로 중국자격증 취득가능
- \* 의료개방 대비, 통합의학에 필요한 인재양성
- \* 해외 침구사 양성 및 한방병원 설립, 취업지원
- \* 가정생활상식, 자가진단을 위한 세미나
- \* 27년간 침구학을 전문으로 강의한 교육기관

### 수료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23기) 5월 27일(금) 14:00-17:00

위치 : 쌍촌역 1번출구에서 회정역방향으로 50m 직진 3층

#### 교육과정 안내

- 기본과정
  - 자격 :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기간 : 매주1회 3시간 /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 침구학개론(침뜸기초, 경락경혈, 침구치료), 이침, 부항, 중국수침, 한방기초 등
- 전문과정
  - 자격 : 기본과정 수료자 이상
  - 기간 : 매주1회 1년과정
  - 주요과목 : 중국침구학연수, 중의학, 경혈학, 진단학, 방약학, 해부학 등

\* 본 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서울본원/대전분원/대구분원/부산분원/광주분원/제주분원

오천경매연구소  
H. 011-605-5000  
E-mail : csg5000@hanmail.net

## 공무원 특별자금

주조회 기록시스템 · 100% 대출보증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4백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년 6%정도(천만원 월이자 5만원)  
◆ 대출기간 | 1년 ~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평균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1.2%~3%

(대부 제 540호)